6강 그리스도의 마음(빌 2:5-11)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하며, 고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이었습니다(27-30절).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남을 살피는 **돌봄**을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역설했습니다(2:1-4). 그리곤 이제껏 줄곧 강조된 '한 마음'(같은 생각, 프로네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프로네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직역: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이다"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모르페**')시나(헬라어 본문에는 접속사 없음)

하나님과 동등됨('**이소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케노오**') 종의 **형체**('**모르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스케마**')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상반절의 결론!**

9 **이러므로**(6-8절의 결과) 하나님이(유일한 주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최종 결론!**

<정리 및 나눔 질문>

1.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빌 2:5). '겸손'이 세상에선 무기력해 보이며 정적인 성향 쯤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하나님 나라에선 어떤 것보다 강력하며 역동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일은 그리스도를 쏙 빼닮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는 겸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 자신을 낮추어(남을 높이며) 복종하는 겸손, 성과를 하나님의 손에 오롯이 맡기는 겸손을 품는 일 말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예수만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 힘쓰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빌 2:5).